

전설의 19수능 국어 백분위 100의 국어칼럼- 1. 독해력 올리기

안녕하세요, whatever입니다. 그전에 두 개 칼럼 올렸던거에 엄청 관심을 많이 주셔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 그래도 덕분에 빨리 다음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네요.

오늘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칼럼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국어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제일 의견충돌이 많기도 한 과목이기도 한 거 같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칼럼은 보통 국어가 비중이 제일 많을 예정입니다. 오늘 칼럼도 아마 여러 편으로 나누어져서 진행될거 같네요.

제가 첫 번째 칼럼에서 '스택'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국어란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4가지 정도의 스택이 필요합니다. **독해력, 기출분석, 정보정리, 멘탈**. 이렇게요.

먼저 1. 독해력.

쉽게 말해서 글을 잘 읽고, 잘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피지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연습을 통해 발전이 가능하긴 하지만, 타고나는 측면이 꽤나 강합니다. 독해력이 정말 좋으면, 사실 국어 공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국어 문제 풀 때 기출분석하거나, 기호 표시 안하잖아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고 문제 풀면 다 맞으니까. 그런데 그게 수능 수준은 커버가 안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물론 그게 가능한 친구들도 있죠. 학교에도 다른 과목은 잘 못하는데 국어는 시간 30분 남기고 다 풀고 자고있는 괴물들 한두명 있잖아요? 개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니까 넘어갑시다.)

그럼 이 독해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 국어 전공생도, 교육자도 아니라 전문적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 이 메인이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영어처럼 **'구문'**으로 생각하면서 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이 추상적인데,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제가 실제 과외 수업에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1 수능 첫 비문학 지문입니다. 여기서 정보를 뽑아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18세기, 북학파, 청, 연행록, 문물제도, 북학론..... 독해력이 약한 학생들은 이 단어들이 정리가 안 되고 머릿속에 따로 뽕뽕 돌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북학론' 이 뭔가요?

한국사 시간에서도 많이 들어 봤을거고, 주위들은 지식들도 많을 겁니다. 뭐 조선 후기에 청

나라 문물을 배우고자 했던 이론.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나요?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 저 지문을 쓴 필자와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지문의 말로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

왜냐구요? 두 번째 줄 보니까 북학론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게 저 구절이더라구요. 이렇듯, 우리가 아는 ‘북학론’의 정의는 상당히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이 지문을 독해할 때만큼은 북학론=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문의 필자 역시 ‘북학론은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것이다.’ 라는 줄기를 잡고 그 이후의 글을 전개해나갈 것이거든요. 어떻게 아냐구요? 본인이 지문에 저렇게 써놨잖아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럼 북학파들은 어떻게 저 북학론을 구체화했나요? 같은 방식으로 저 문장을 독해해봅시다. ‘구체화하였다.’라는 말에 집중해서, 설명해주는 구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연행록으로 기록하여’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그냥 읽어보기엔 ‘에이 저걸 누가 못하냐? 또 오르비에서 한명 뺏지달고 별것도 아닌걸로 설치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본인한테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저거 해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니, 뒤에 읽어야 하는 문장들이 산더미인데 저걸 어떻게 하나. 시간도 없고 효율도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영어공부 할 때는 다들 구문강의 듣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구문강의 없이 독해강의만 하시는 선생님 없었습니다. 순수한 지문내용 난이도로만 따지면 영어보다 국어 지문이 훨씬 더 길고 어려운데 왜 영어공부 할 때는 주구장창 구문공부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어는 왜 안하냐요? ‘우리는 국어 네이티브니까 괜찮아요.’라는 대답은 변명입니다. 그거 우리가 자주 듣고, 싫어하는 ‘우리나라 영어 지문 미국인이 봐도 못 푼다.’ 논리랑 같은 소리입니다. 수능은 ‘읽을 줄 아냐, 뭘 소리인지 아냐’를 묻는 시험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잖아요.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정보를 제대로 뽑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도 아니구요. 연습하면 되는 영역입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보면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18수능입니다. 똑같이 질문을 해 볼게요. 물질론이 뭔가요?

같은 방법으로 독해해서, 물질론=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 가 되겠죠. 하나 더, 환원론은 뭔가요? 환원론=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 화학 법칙으로 설명되는 것. 이 되겠죠. 다만, 환원론이 나오는 문장 앞부분에 ‘물질론 가운데 일부’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 물리 화학 법칙인데, 기본적으로 물질로 구성된다는 것이 베이스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지금 어려운 걸 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에서 하듯이, 구문 분석 조금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앞 문장이랑 유기성을 끌어낸 거죠. 이걸 다음 문장에도 하고, 그 다음 문장에도 해 주면? 당연히 유기적으로, 글을 '독해'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만 한다고 모든 지문을 다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제가 위에서 말한 다른 요소들. '멘탈, 정보정리, 기출분석' 이 필요한 거겠죠. 다음 칼럼으로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첨부파일로 이 게시글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제 과외 교재 내용인데, 코로나라 그런지 과외도 안 구해지고 답답한데 여러분이라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외 지역은 여기선 말 안하지만 화상과외도 잘하니까 혹시 국어과외 필요하면 쪽지주십쇼..... 사실 이게 칼럼쓰는 본 목적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좋아요, 팔로우, 댓글, 쪽지! 많이많이 부탁드립니다.